

참선은 쉽고 어려움 초월한 생명 그 자체

명정 스님(극락선원장)

밤새 달빛 내려와 노닐었던 마당을 스님 한 분이 대빛자루로 쓱쓱 쓸고 있다. 굴러다니는 한두 잎의 가랑잎을 쓸어낸다고보다는 자신의 마음 속 무언가를 쓸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인은 열반에 든지 오래건만 삼소굴에서 아침 연기가 피어오른다. 근대 한국 선종에 우뚝 솟은 큰 봉우리인 경봉스님께서 머물렀던 삼소굴에 생전처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누군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부지깥이로 장작불을 채근해 보았다. 아궁이 입구를 막아놓고서 삼소굴 뿔마루에 앉아보았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온 몸을 감싸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경봉 스님 가신지 오래지만 미답이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시면서 "여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하고 물으실 것 같다.

효상좌로 이름 난 명정 스님은 추운 겨울이면 삼소굴이 행여나 추위에 떨까 걱정되어 아침저녁으로 불을 때워 다스리게 한다. 명정 스님은 경봉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줄곧 곁에서 시봉을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으며, 지금도 극락암에 머물면서 경봉 스님이 남기고 간 정신과 유품을 지키고 있다.

명정 스님은 차의 대가이자 선객으로 널리 알려져 있건만 자신의 그런 명성보다는 '경봉 스님의 상좌'라는 말 듣기를 더 좋아한다. 경봉 스님의 선종과 차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명정 스님의 생각이다.

금빛 아침 햇살이 창호문을 비추고 있다. 명정 스님께서 끓여 놓은 물을 화로에서 내려 놓은지 한 시간여가 지났다. 차는 뜨거울 때 마셔야 하는데 스님은 어찌자고 찻물을 저렇게 식히고 있는지 객의 마음은 걱정스럽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명정 스님은 몇 통치나 되는 경봉 스님의 사진을 낱날이 보여준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경봉 스님의 사진집을 출간해 근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명정 스님의 발원이다. 경봉 스님은 19세부터 85세까지 66년 동안 일지형식으로 쓴 일기를 남겼는데, 이 일기에는 당시의 사회상과 한국불교가 그대로 담겨있어 중요한 유품으로 남았다. 경봉 스님의 사진 또한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를 아우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명정 스님은 다관에 찻물을 들쭉 넣으면서 "차는 뜨겁게 마시는 것이 아니. 물의 온도가 우리 체온과 비슷해야 차의 참맛을 알 수 있지"라고 하신다. 우려낸 차는 색과 향이 진하다. 입안에 감도는 맛이 진하다 못해 알싸한 맛이 느껴진다. 하지만 명정 스님의 차를 마시고 나면 잡스런 맛이 없는 담백함에 반하게 된다. "한 잔의 차에 선가(禪家)의 살림살이가 모두 들어있다"는 말이 있듯이, 명정 스님께서 우려낸 차맛에는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만큼이나 지중한 수행과 시간이 녹아있다.

"다기는 작은 것으로, 마음 씀스 7세 이전으로, 물



경봉 스님 선과 차 맥이어... '삼소굴' 추울까봐 매일 장작불 "찻물 온도가 우리 체온과 비슷해야 차의 참맛 알 수 있지"

도 적게, 온도가 뜨겁지 않게, 찻물도 몇 방울로, 이렇게 내 뜨락을 적시며 자신에게로 회복(廻復)하는 것이지."

질은 한 잔의 차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해탈시켜 주는 선가의 음료인가 보다. 다선일여(茶禪一如)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은사 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슬픔은 가슴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깊었지만 드러내 놓고 울 수도 없는 일, 그래서 한 마디 여쭙었다.

"스님께서 가시고 나면 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모습입니까?"

"아반 삼경에 대한 빗장을 먼저 보겨라."

경봉 스님은 웃시면서 이 한 말씀을 남기고서 원적이 드셨다. 화두와도 같은 경봉 스님의 이 한마디는 두고두고 화자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

이 명정 스님께 물어 온단다. 명정 스님 왈 "조주 화상 시절 같으면 '차 한 잔 마셔 보면 안다' 하면 될 터이고, 운문 스님 같으면 '떡이나 먹게'라고 한 마디 툭 던지면 되는데 그런 시절도 아니니 답하기 곤란하지. 선구(禪句)는 설명하면 사구(死句)가 되고 또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벌써 허물이 설악산만큼이나 커지는 이 집안의 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사람들이 이해할지..."

명정 스님은 공색하지만 답변을 준비해 보았다.

"아반 삼경에 대한 빗장을 먼저 보겨라 하는 말은 설명을 들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대로 알아야 해. 세상의 비밀이란 남이 모르게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부처님의 비밀은 몽땅 드러내어 귀를 뚫고 말해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모르는 것이니 오늘 밤 삼경에 대한 빗장을 한 번 더 먼저 보겨."

명정 스님의 답변 또한 어렵기 때 마찬가지다.

"선문에 원앙수출중군간 마파금침도여인(鸞鴦繡出從君看 莫把金針渡與人)이라는 말이 있어. 원앙새를 수놓아 보일지언정 바늘까지는 주지 말라는 뜻이지. 원앙새를 수놓는 것이 일호(一好)의 끝 경지야. 그런데 그 일호는 자기가 미치고 환장해서 헤매고 땀 흘리며 찾는 보물이지 비늘을 쟁겨 준다고 해서 수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 바늘을 쥐 봐야 쓸데가 없는 거지."

공부라는 것은 손안에 쥐어 줄 수도 없지만, 설명 품안에 넣어 준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이다. 명정 스님은 무슨 말씀이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시지, 직설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경봉 스님의 유품으로 당대의 선지식들과 서간으로 선문답을 주고받았던 편지와 66년간 기록한 일기는 몇 가마니가 되었다.

"한 삼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초서체로 쓰여진 스님의 글을 파고들었지. 내 책상 앞에 둘러 끼여.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나 이게 무슨 뜻이고, 의자에 앉아 꽤나 끔뎠거였지."

명정 스님은 불가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초서 번역에 아주 능하다. 경봉 스님은 일찍부터 명정 스님의 한문 실력을 간파했다. 경봉 스님께서 어느 날 다른 절의 낙성식 글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때 명정 스님이 몇몇몇 몇 마디가 스승을 놀라게 했으며,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면서 상좌의 글 솜씨며 한문 실력을 인정했다. 경봉 스님은 당시의 책과 일기 등 책갈피 안쪽마다 '증 명정선자(贈 明正禪子)'라는 글과 함께 계승까지 덧붙여 남겨놓았다. 명정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경봉 스님 말씀>, <경봉 일지>를 비롯하여 당대의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서한집 <삼소굴 소식> 등을 출간했다. 유난히 기록을 꼼꼼하게 했던 경봉 스님의 글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명정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경봉 스님의 고졸하고도 담백한 문장이 명정 스님의 손끝에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극락암의 수행 기공과 선향을 맛보게 하였으며, 몇몇 사람들은 출가의 길을 걷게 되는 인연을 지었다.

차를 우려내는 명정 스님의 손길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은 286컴퓨터처럼 더 느릿느릿하다. '이 산중까지 와서 객진번뇌(客塵煩惱)와 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언제 마음공부 할라나?' 그런 일갈로 받아들여기로 했다.

"은사님은 뜻이 통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눈 밝은 납승이 찾아오시면 '시자야, 염다래(拈茶來) 하라.'고 이르셨어. '차 다려오라'는 말인데 그것이 그렇게 맛스럽게 들리네. 동도동격(同道同格)의 눈 열린 이에게 최상의 대접은 일원청다(一椀淸茶)지."

명정 스님은 눈 밝은 이, 눈 어두운 이를 가리지 않고 누가 와도 차 한 잔을 내놓으니 조주 스님의 청다(淸茶)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명정 스님은 극락암에 불박이처럼 있으면서 경봉 스님의 시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거철이 되면 결방지고 선방을 오갔으며 그런 운수납자의 생활이 40여 년이 넘는다. 명정 스님께서 한 마디 툭 던지는 말씀이 바로 선어가 되고 선시가 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사오소요(師了了)라. 죽어서 화장장에 가서 태워 버리던 한 줌의 재가 되더니 너의 주인공은 어느 곳에 있는가? 선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선은 학문일 수 없고, 오히려 이지(理智)가 침몰된 뒤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어느 선원에서 경봉 스님께 '영산회상의 꽃을 들어 보인 도리'와 '조주의 앞니에 털이 난 것' 그리고 '서산의 고기에 빨이 난 도리'를 물어왔다. 여기에 경봉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였다.

몇 군데나 이렇게 물었나/ 일구(一畝)도리를 해결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三生을 깨꿨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일 제공
- ▶ 수련비 : 200만원
- ▶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TH)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집쟁이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급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일을 보내드립니다. (1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흥론, 최면요법 등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밝고 원만한 생각이 극락”

하지 못했구나/ 고인들이 씩뚱 지계미를 탐하지 말라/ 보검으로는 송장을 베지 않노라/ 미소(微笑)
“옛 도인들은 한 가지 이치로 넉넉하게 통하는 도리를 즐겼던 분들인데, 그 도인들이 씩뚱 지계미를 가지고 번거로이 묻는 것은 허물이 크다는 말씀이지.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으면 구태여 말을 궁리해가며 선문답을 할 필요가 없어. 이 도리는 말이나 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실사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한 톨이라도 필요 없는 것이야.”

극락암에 오면 고즈넉한 산사의 풍광에 반하게 되고 어쩐지 참선이나 명상수행을 통해 도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명정 스님께 불속 묻는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 정진집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선조 때의 청매 조사는 고요한 산중 선방에서 나와 일부러 시끄러운 장터로 공부하러 다녔어. 사람들이 붐비는 장바닥 한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순일하게 잘 되면 ‘오늘은 장을 참 잘 보았구나’ 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오늘은 장을 참 못 보았구나’ 하며 자기의 공부를 점검했어. 청매 조사는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선을 했지.”

인간의 업식(業識)은 수만 년 열심히 본능적으로 그 밑 빠진 독을 채워 왔기에 그 업식을 바꾸려면 극심한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일수록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단련하는 데 진정한 묘미가 있는 것 이란다. 명정 스님은 말미에 “그렇다고 참선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야. 참선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지”라고 덧붙인다.

“사람은 응골 찬 신념이 있어야 해. 신념이라는 것은 행선지요, 표지판이야. 만약 행선지가 없는 차(車)라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얼마나 무모하게 헤매고 다니는지를 생각해 보면 행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이 신념이란 진리의 이상향으로 향해서 가는 원동력인 것이야.”

산중에 계시지만 산 아래 동네의 소식을 훤히 꿰고 있는지라, 명정 스님은 민중들의 삶이 어렵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셨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 마음에 따라 거지도 되고 왕자도 되며 생각이 따라 지옥과 천국이 판이하게 벌어져. 희망에 부풀어 밝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며 생각하는 발상부터 무언가 다르고 차이가 나지. 아무리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참고 견디어 밝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머지않아 축복이 오리라는 신념을 지니

고 살아야지. 하루 종일 퍼붓는 소나기는 없으니까.”

경봉 스님은 극락암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대문 밖을 나서면 돌도 맑고 물도 맑으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물에 미끄러져 웃도 버리지 말고 잘들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명정 스님은 “마음속으로 밝고도 원만한 생

각을 지낸다면 거기가 바로 극락인 것이니, 다시는 극락암을 찾지 말라”고 이르신다. 스님 무슨 그런 섬세한 말씀을 하세요.

산목련 꽃향기를 들으려 와야지요. 향기 소리 깊은 곳에 차 한 잔 마시러 와야지요.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명정 스님은 1959년 해인사로 출가, 1960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의 시자가 되었다.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40년 넘게 운수남자(雲水衲子)로 평생을 참선 수행에 전념해 왔다. 현재 영축총림 극락선원 선원장으로 있다. 편저서로는 <경봉 스님 말씀> <삼소굴 이야기> <경허집> <한암집> <신심명> <참이야기 禪이야기> 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0> 일봉 서경보 스님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126개나 받고 선필(禪筆) 100만장, 시비 757개, 동상 95개를 세우고, 159개국 5,000개 단체에서 세계법왕으로 추대하고, 112개국 1,046개 단체에서 존자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일봉 스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 전권대사로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매일 같이 책을 엮어 저서가 1,042권이나 되고, 수계발자가 6,832명이나 된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왕관만도 다섯 개나 되었다.

스님은 1996년 4월 24일 인천 불교삼장대학(종립대학)에서 창립법어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4월 4일 의령 낙성사에 참석하고, 13일 서울삼장대학 졸업식을 보고, 18일 초창법회를 하신 후 24일 인천에 내려가니, 83세 노인으로서 과로가 되었던 것이다. 스님은 26일 입원하시며, “아무래도 내가 재기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에 다녀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깨닫고 45세의 늦은 나이로 10대 어린이들과 영어공부를 하였다.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불국사 주지, 동국대 불교대학장으로 있을 때 외국 손님들을 잘 알아 접대하고 또 상호교환하여 교환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얀마 상가대학



경보 스님상(제주 광명사).

다른 신문에 선필에 능한 대선사가 왔다고 대서특필하여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불교법왕이 된 이후부터는 회색빛 장삼을 벗고 노랑색 가사를 입었다. 이것은 동남아 일대 사람들이 모두 노랑가사를 입고, 워싱턴대학, 하와이대학 인도불교가 황색가사를 많이 입는데 원인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콜롬비아대학 교환교수로 갔다가 캘리포니아대학 강사가 되기도 하고, 워싱턴대학, 하와이대학 교수로 있다가 백범사에 선종대학을 세우기로 하였다.

1990년 제17차 WFB대회 때는 김광배 박사과 박동기·전판근·정철 호법단장의 노력에 의해 35개국 8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 장장 9일 동안의 행사를 원만히 치렀다. 박장도 의식(儀式)도 달랐지만 국제보살계와 판자살라를 통해 세계불교가

세계평화·화합 위해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인천대학 학장은 한정섭 법사에 부탁하라”하여, 그 후 3년 동안 인천대학 일을 본 일이 있다. 스님과의 인연은 1960년에 동국대학교 시절부터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김대은 스님께 여러 차례 들었다.

“경보 스님은 제주도 분이요. 1914년 서귀포에서 태어나 32년 산방굴사에서 스님이 되었으나, 도서지방에서는 불교를 바로 배울 수 없어 35년 육지로 올라와 전주 위봉사 총담 스님에게 ‘일봉’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전주 교도소에 갔다가 대은 스님을 만나니 감방 안에서 쓴 원고를 조건 없이 주시면서 ‘서울에 가서 큰물에 놀아야 한다’ 하여, 개운사 대원암 박한영 스님을 뵈고 동국대학에 들어가 불교학을 전공한 것이 해인대학, 동국대학교수가 된 계기가 됐다. 1958년

에 간 것이나, 독일 함부르크대학, 스리랑카 골롬보대학, 영국 런던대학에 유학하고 교환교수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대은 스님 말씀 따라 영어를 잘 한데다가 외교를 잘 한 영향이 컸다. 언젠가 한번 법왕청에서 공양청을 하여 가니 스리랑카 스님 몇 분과 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 때문이다. 독일 광산에 많은 광부들이 있고 간호원들이 와 있었는데 몇일부터 어느 대학에서 불교강연대회가 있다고 신문기자가 미리 와서 내 사진을 찍어 신문에 냈는데, 머나먼 나라에 와서 한복 입은 스님을 보니 고향생각이 나서 수백명이 모여 왔어요. 그래서 모두 글씨 한 장씩을 써주고 격려하였더니, 또

일불제자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인류를 기아와 무지, 병고액난으로부터 구하고, 전쟁의 위기에 벗어나게 하며,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을 강조했으니 1700년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포교한 사람이 많지만, 일봉 스님이 씨를 뿌려 송산 스님이 가꾸어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으로 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 불꽃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을 하시면서도 왜 아함·방등·반야·법화를 설명해 놓고, “녹야원에서 쿠시나가라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했다” 하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3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 1) 공모주제 : 불교학과 관련한 자유주제
-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문인력 이상은 제외)
- 3) 선정 인원과 상금 : 우수상 (1명) 500만원, (3명) 1인당 300만원
- 4)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 (4) 이력서(주소·전화번호·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 5) 제출기한 및 발표
 - (1) 제출기한 : 2009년 2월 11일 ~ 26일 오후 5시까지
 - (2) 선정 및 통보 : 2009년 3월 10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 (3) 논문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09년 5월 (예정)
 -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09년 6월
- 6) 주의사항
 - (1) 선정자는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2)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3)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 1) 발표주제
 -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3)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연구방법론
 - (4)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 등)
- 2) 발표문 분량 : A4 7~8매
- 3) 발표 자격 : 박사과정 이상자
- 4)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 5) 특 전
 - (1) 발표비 : 1인당 30만원
 - (2)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 (3)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팩 스 02)734-9622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
 연구원 메일 seonhakwon@paran.com

(재) 선학원 한국 불교 선 리 연구원

공생선원 봄 개강



혜거근스님께 듣는 능엄경

- 법 사 : 혜거근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3월 5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선문철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3월 3일 참선반 / 3월 4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